

박지성 '해결사 특명'

내일 새벽 AS 로마와 8강 2차전 출격 채비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7·사진)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 길목에서 다시 한번 물오른 감각을 펼친다. 박지성은 10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펼쳐지는 이탈리아 1부리그 AS 로마와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홈 2차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 시즌 연속으로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 나선 박지성의 현재 컨디션은 최고조다.

지난 2일 이 대회 8강 원정 1차전에서 박지성은 '깜짝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하며 절묘한 헤딩 패스로 웨인 루니의 두번째 골을 도왔고, 6일 미들즈브러와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돼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특급 해결사'로 거듭났다.

시즌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맨유 주전들이 체력 고갈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긴 부상에서 복귀한 박지성은 필필 날고 있다.

나흘 만에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박지성의 연속 공격 포인트가 기대되는 이유다.

맨유는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지만 망 놓고 여유를 부릴만한 형편이 아니다.

잉글랜드 FA컵 8강에서 포츠머스에게 발목을 잡으며 트레블이 물거품이 된 뒤 챔피언스리그와 정규리그 우승까지 더블을 노리고 있는 맨유는 최근 네마냐 비디치-리오 퍼디넌드 중압 수비 콤비가 잇따라 다쳐 비상이 걸렸다.

비디치는 2일 원정 1차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최소 2주 진단을 받았고, 퍼디넌드는 미들즈브러전에서 발을 다치는 바람에 이번 경기 출장이 불투명하다.

비디치 한 명이 빠진 미들즈브러전에서 맨유는 2골을 내줬는데 퍼디넌드까지 빠지면서 더욱 불안한 상황. 수비 불안이 겹친 만큼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는 박지성을 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드필더 포지션 경쟁자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루이스 나니, 라이언 깁스가 있지만 나니는 최근 부상으로 결장을 거듭하고 있고 노장 깁스는 체력이 딸린다는 평가여서 박지성이 출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이어 2년 연속 8강에서 강적 맨유를 만나게 된 AS로마는 2차전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마는 올 시즌 세리에A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는 주장 프란체스코 토티가 부상으로 1차전에 빠지는 바람에 홈에서 완패 수모를 당했는데 2차전에도 토티를 제외한 체원정 명단을 짰다.



맨유·첼시·아스날·리버풀 '2관왕 전쟁' 돌입

■ 프리미어리그

4팀 모두 FA컵 8강 탈락

정규리그·챔스리그 노려

'FA컵 8강 탈락으로 트레블을 놓쳤지만 더블 희망은 살아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강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시, 아스날, 리버풀이 FA컵과 정규리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3개 대회 우승을 싹쓸이 실패의 아쉬움을 2관왕에 도전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빅4'는 정규리그 1~4위에 늘어서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모두 올라 있다. 지난 2006-2007시즌 맨유와 첼시,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8강행에 성공했지만 이번 시즌처럼 단일 리그에서 네 팀이나 8강에 진출하기는 처음.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동시에 들어올리려는 '더블 전쟁'에서 맨유가 가장 유리하다. 지난 달 9일 FA컵 8강에서 포츠머스에 0-1로 탈미를 잡혀 1999년 이후 9년 만의 트레블 기회를 날렸던 맨유는 승점 77(24승5무4

패)로 2위 첼시(승점 74)를 따돌리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맨유는 또 지난 2일 AS로마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10일 홈경기로 치러질 2차전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지지 않으면 4강행은 떼어놓는 당상이다.

문제는 정규리그 2연패를 달성할지 여부. 맨유는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블랙번, 첼시, 웨스트 햄, 위건과 차례로 맞붙는다. 하지만 지난 6일 미들즈브러전 2-2 무승부로 첼시에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됐다.

14일 아스날과 리턴매치에 이어 27일 첼시와 외나무다리 대결 결과에 따라 우승 여부가 판가름난다.

독점왕을 예약한 호날두와 공격수 루니, 카를로스 테베스, 승리에 '위대한 조언'을 해준 박지성이 든든하지만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와 리오 퍼디넌드의 부상 공백이 커보인다. 하지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약조건을 달고 2관왕을 달성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부자군단' 첼시도 더블 희망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FA컵 8강에서 맨유에 제물이 됐지만 지난 6일 정규리그 33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0으로 완파하고 맨유를 승점 3점 차로 뒤쫓았다. 2005-2006시즌 이후 2년 만의 정상 탈환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첼시는 칠백 수문장인 페테르 체흐가 혼란 중 얼굴 부상으로 남은 시즌을 접어 카를로스 쿠디치니가 계속 골문을 지켜야 하고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도 부상을 당하는 등 불운이 겹쳤다.

다만 에버턴, 뉴캐슬, 볼턴 등 약체와 경기를 남겨뒀던 맨유전에서 극적인 뒤집기를 연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첼시는 앞서 챔피언스리그 8강 상대인 페네르바체(터키)와 원정에서 1-2로 일격을 당했지만 홈경기에서 반전시킨다면 2관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올림픽 남북 단일팀 무산 위기

IOC, 성화 해외봉송 폐지 검토

北측 거부로 논의조차 안돼

2008 베이징 올림픽의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의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총회 기간 박학선 신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과 양자 회동을 갖자고 2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했다.

김정길 위원장은 9일 "남북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문제를 북한과 논의 하려 했으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공식 무산이란 통보를 해준 것이 아닌 만큼 계속 접촉을 시도하며 각종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남북관계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접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도 "이번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 사태' 봉송 차질 여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해외 성화봉송을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8일 이스라엘 IOC 위원인 알렉스 질라디의 말을 인용, IOC가 차기 대회부터는 그리스에서 지핀 성화를 해외 봉송 루트를 거치지 않고 주최국으로 바로 보내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일부 IOC 위원들은 최근 런던, 파리 등지에서 티베트 사태와 관련한 시위로 인해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에 차질이 빚어진 뒤

이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AFP통신은 IOC가 급중중 성화 해외봉송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AP통신은 "후속 논의는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질라디 IOC위원의 말을 전했다. 전 IOC부위원장으로 올림픽술리다리티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케빈 고스퍼 IOC위원(호주)은 가장 강력하게 해외 봉송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IOC 집행위가 이번 주에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수)

▲2008 프로야구<한화 : 두산>(13 : 40·SBS스포츠) <기아 : SK>(13 : 50·MBC ESPN) <롯데 : 삼성>(13 : 30·KBS N SPORTS)

▲AFC 챔피언스리그<장춘 : 포항>(16 : 20·SBS스포츠·XSPORTS) <전남 : 춘천리>(18 : 40·SBS스포츠·XSPORTS)

▲2008 MLB<LA다저스 : 애리조나>(10 : 30·XSPORTS)

▲2008 일본프로야구<요코하마 : 요미우리>(17 : 50·MBC ESPN)

▲제7회 춘계한국여자축구 고등부 결승전(10 : 00·KBS N SPORTS) 중등부 결승전(12 : 00·KBS N SPORTS)

10일(목)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맨체스터 Utd : AS로마>(03 : 30·MBC ESPN)

장수온돌침대

최고품질의 온돌 침대를 찾아주세요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 하이파리시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5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론 4인식탁 ₩ 690,000 (현금결제)

2008 KFA K리그1 <FC 서울 : FC 안양> <FC 서울 : FC 안양> <FC 서울 : FC 안양> <FC 서울 : FC 안양>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52-252-3001~2